

IT글로벌 생산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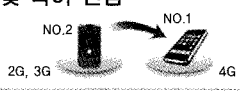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주력 IT라 할 수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폰의 세계 1위 전략이 본격 가동된다. 주력 IT기기의 글로벌 공급기지가 확고하게 되는 것이다. 주력 3대 품목의 완제품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생산 기반인 중소기업과 장비 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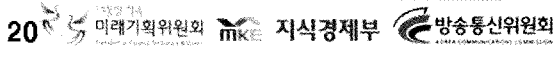
세계시장 425를 점유하면서 세계 1위이고, 디스플레이에서 세계시장의 46%를 점유하면서 세계 1위이다. 휴대폰에서는 세계시장 28%를 점하면서 세계 2위이다. 문제점으로는 전체 IT 수출액 중 3대 품목의 비중이 2006년 65%, 2007년 68%, 2008년 70%로 소수 품목 중심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사업체수가 1.4%임에도 생산의 71%, 수출의 87%를 점하는 대기업 중심의 구조라는 점이다.

주력 IT산업은 성과에 있어 지난해 기준 메모리에서

2. 주력IT산업(3대 품목) 핵심과제

목 표 • 후발 경쟁국과 차별화된 경쟁우위 확보
- 3대 품목 세계 시장점유율 1위 유지·달성

<p>메모리</p> <p>집적도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 메모리(STT-MRAM) 개발 국제경쟁 치열</p>	<p>• 차세대 메모리 원천기술선점 및 민관 공동 R&D</p> 
<p>디스플레이</p> <p>10년 이내 대화면 OLED가 기존 LCD, PDP 대체 예상</p>	<p>•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및 표준선점</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대화면 OLED</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플렉서블 디스플레이</div> </div>
<p>휴대폰</p> <p>휴대폰 시장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진화 중</p>	<p>• 디자인, OS 등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차세대 이동통신 표준 및 특허 선점</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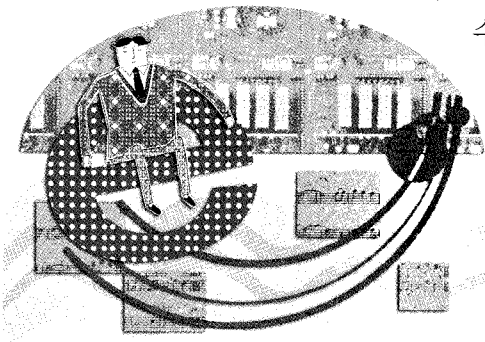
3대 품목의 핵심과제로서 반도체 분야는 집적도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 메모리(STT-MRAM) 개발을 선도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진다. 국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삼성전자·하이닉스와 정부가 함께 진행하는 차세대 메모리 원천기술 선점 및 민관 공동 R&D도 시작될 예정이다.

디스플레이 분야는 기존 LCD, PDP의 대체가 예상되고 10년 이내 세계 시장을 석권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화면 OLED의 기술 선도력과 시장 장악력을 확보하는데 힘을 모은다. 대화면 OLED와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분야 등에서 세계 1위를 지속하면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및 표준을 선점하는 것이 미래에도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전략이다.

휴대폰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진화 중이다. 앞으로 디자인·운영체제 등 소프트웨어를 집중적으로 강화해 노키아와의 격차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세계 1위 등극에 R&D와 기술 개발 목표를 맞추게 된다. 2G, 3G 시대에 넘버 2에서 4G시대에는 세계 넘버 1로 바꿀 것이다.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조기 실현함으로써 국제 표준 및 특허를 선점하고 이를 통한 세계 시장 선점 전략도 속도를 낸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의 세계 시장 석권과 더불어 우리 산업구조가 해결해야 할 큰 과제는 관련 장비산업의 경쟁력 제고다. 주력 IT장비산업의 현황을 보면, 시장 특성이 소

수 다국적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시장 규모는



지난해 2,041억불에서 연평균 4.5% 성장하면 2018년에는 3,160억불에 달할 것이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수출 36.2억불, 수입 101.2억불로 65억불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였다.

글로벌 수준의 장비기업이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매출 1조원 이상 장비기업이 전무하다. 경쟁력이 취약하여 국내 수요기업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품 경쟁력은 있으나 이를 만들어내는 장비 국산화율은 20%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장비 관련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55~90% 선이고 가격 경쟁력은 후발국 대비 70~95% 선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수요자인 대기업과 공급자인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하여 기술 경쟁력 확보와 성장기반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발표된 신성장동력 5대 장비산업 육성전략을 강도 높게 전개해 주력 IT 분야 장비산업을 IT제품 경쟁력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핵심과제는 5대 IT장비산업의 육성을 통한 중핵기업의 창출이다.

구매 연계형 공동 R&D로 국산 장비의 보급 및 확산을 도모하고 장비업체의 대형화를 위해 M&A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20% 수준인 반도체장비 국산화율을 2013년까지 4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디스플레이장비 국산화율은 30%에서 50%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LED 장비는 특히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국산화율을 2007년 10%에서 2013년 50%로 향상시킬 것이다. 현재 2.7%에 머물고 있는 네트워크장비와 1%의 국산화율을 보이는 방송장비분야는 수요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공공기관 구매제도를 개선하며, 국산 장비의 신뢰성 향상을 지원하여 2013년 국산화율을 8%, 3% 수준까지 높인다는 전략이다.